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5/29℃ 목포 24/29℃ 여수 24/28℃
단기 4343년 (음력 7월 2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6호 1판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철강 왕국' 역사 새로 썼다

포스코 광양제철 세계 최대 후판 생산라인 첫 가동

'애앵~ 애앵~ 애앵~' 30일 오후 3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첫 제품 생산을 알리는 싸이렌이 울렸다. 포스코의 세계 1위 후판생산업체 등극을 알리는 역사적인 싸이렌이었다. 〈관련기사 3면〉.

잠시 후 후판공장 가열로에는 제강공장과 연주공장을 거쳐 생산된 시뻘건 슬래브(반제품)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로 3m, 세로 2.2m, 두께 30㎝의 슬래브는 500m 롤러테이블을 타고 압연→가속냉각→열간교정기→냉각 과정을 차례차례 거쳤다. 슬래브는 압연기에서 20차례 왕복하며 가로 30m, 세로 4m, 두께 2.5㎝의 10배가량 늘어난 후판 제품(날판)으로 변모했다. 이 날판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절단돼 상품화 된다.

10여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압연운전실에서는 10여명의 직원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20차례의 압연 과정이 순조롭게 작동되자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압연기가 말썽을 일으켜 3개월이나 애를 먹는 등 지난 2년 동안의 힘겨웠던 준비과정이 스치고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다. 후판공장에는 42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영춘(41) 후판공장장은 "지난 2년간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한 동료들의 첫 작품이다"며 "앞으로 한 달동안 모든 공정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세계 최고급의 후판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총 1조80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하이밀공장 인근 38만㎡(11만5151평) 부지에 세워졌다. 지난 2008년 8월 첫 삽을 떠 지난달 12일 후판공장 내 제강공장(240만t 규모)을 준공하는 등 2년1개월여만에 모든 생산라인을 마무리한 뒤 이날 첫 테스트 제품을 만들어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세계 최대' 타이틀을 두 가지나 갖게 됐다.

그동안 후판생산 세계 1위 일본 NSC와 스미토모 제철소의 연간 540만t 생산능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포항제철소 500만t, 광양제철소 200만t을 합쳐 700만t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세계 최대 폭의 후판을 생산할 수 있다. 4600mm에서 5300㎜로 세계 최대 광폭 제품을 자랑한다. 폭이 넓으면 그만큼 용접이 줄어 제품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국내 최초로 제강~연주~압연~출하까지 자동화 직송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같은 공장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다른 공장들과는 열효율, 이송시간, 운송비 등에서 경쟁력이 높다.

후판공장은 10월부터 본격 가동돼 올해 연간 200만t, 하루 5500t규모의 후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50만t 늘려 연간 250만t, 하루 6800t 규모로 증산된다. 연 매출은 2조2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개선팀 이덕용 대리는 "직원들은 세계 최고·최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나아가 세계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능력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정욱기자 jwpark@

▲후판(厚板)=두께 6~200㎜, 폭 1.6~5.3m의 두꺼운 강판으로 저온 또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인성과 높은 강도를 갖춰 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 등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주로 쓰인다. 교량을 비롯한 해양구조물, 가스관 자재 등 산업기계에도 널리 사용된다. 일반 열연 철판(두께 1.2~20㎜)보다 최대 10배 가량 두껍다.

세계 최대 후판 생산능력을 갖춘 포스코가 30일 오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첫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0월부터 이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광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히당크관광호텔
예약문의 227-6500

학교설립 56주년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수도권 규제 이젠 대놓고 푸나

한 의원 44명 완화 법안…광주시 강력 반대 나서

광주시가 광주발전연구원에 자치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고, 국토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자칫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신규 산업 추진 등 지역발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 44명이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각각 나눠 대학 설립 및 대형건축물·공공청사, 공장, 택지 등의 신규 설치 및 조성을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법안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어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전남의 발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면, 서울공화국을 만들 것인지, 지방을 깔아뭉개자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정부여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독재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은 물론 자치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작업에 나서기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업체 지원 대책 마련과 수도권 이전기업의 국비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율 상향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영호남 광역단체장 모임의 의제로 채택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규제까지 완화하면 다시 기업이나 기관들이 모여들 것은 자명하므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李대통령, 조현오 등 7명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 이재오 특임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사와 관련, "총리는 오래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 기준이 맞고 내각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는 패륜적 망언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부도덕한 인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소통과 국민통합이란 말 뿐이고 독선과 편협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태풍 '곤파스' 북상…내달 2일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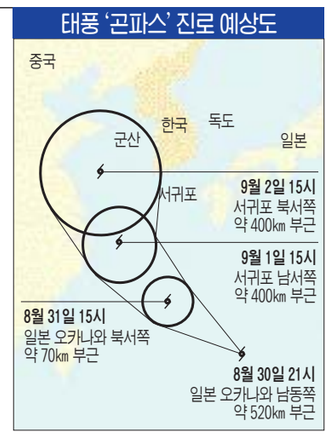
북상 중인 제 7호 태풍 '곤파스'(compass의 일본어)가 다음달 2일께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9일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곤파스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께 서귀포 남서쪽 약 44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해 중심기압 975hPa, 최대 풍속이 초속 34㎞인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일 오후 3시께 군산 서남서쪽 약 430㎞ 부근 해상으로 접근해 이날 낮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중형급이지만 바다에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있어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1일 광주·전남지역은 열대저압부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낮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우량은 20~60㎜(많은 곳은 80㎜ 이상)이다. /양수현기자 yang@

태풍 '곤파스' 진로 예상도



세계인의 현대미술 축제…8일째
2010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10000 LIVES
2010. 9. 3~11. 7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양동시장